해외양돈뉴스

- 홍 보 부 -

일본 돈콜레라박멸「제 2단계」돌입, 접종 중지지역 지정

지난 '96년부터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올해부터 예방백신 접종 중지지역을 지정하는 등 2단계 사업에 돌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2년간의 실적을 근거로 올해부터 백신접종 중지지역을 결정하고 2000년에는 중지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돈콜레라 청정화를 선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2단계 사업의 돌입은 지난 '93년 이후 단 한건도 질병 발생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과 생산자단체 등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돈콜레라를 완전 퇴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의 돈콜레라 청정화사업은 1단계로 철저한 백신 접종을 통해 발생을 봉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백신접종을 중지하며, 그래도 발생사실이 없을 경우 3단계로 청정화를 선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매년 돈콜레라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산 돼지고기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생산자들은 지금까지의 성공적 추진으로 보아 2000년에는 돈콜레라를 완전 퇴치할 수 있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의 52%가 흑돈(黑豚) 구입경험, 64%가 만족

최근 일본의 소비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흑돈으로 표시된 돼지고기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52.2%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흑돈 구입의 이유에 대해서는 ▲흑돈임으로 육질이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가 73.2%, ▲보기에 맛있어 보여서가 25.2%, ▲우연히가 9.6%의 순이었다. 구입한 결과에 대해서는 ▲과연 맛이 있었다가 64.4%, ▲생각보다 맛이 없었다가 24.6%, ▲기타가 11.1%로 60%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미국버크샤협회는 일본시장을 겨냥한 아메리카버크샤골드(ABG)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다.

'97년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평정되는 추세

농수성 축산국 위생과가 종합한 '97년(1~12월)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의하면 법정전염병이나 신고 전염병 등이 총체적으로 평정되는 추세에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중병 질병에 대한 박멸대책이 큰 흐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만성적인 질병으로 적발이 어려운 일부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적발도태' 등에 의한 조치

를 계속 실시해 나간다는 대응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실질적인 조치로 작년 4월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일부를 개정 금년 4월부터 개정법에 의한 새로운 방역체제가 시행하게 된다.

수입육 소비저하로 도매가격 부진

수입육의 도매가격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개인소비 저하로 인하여 소매단계의 움직임도 둔화되고 있다. 수입식육의 경우 접대수요 감소 등으로 스테이크점 등 외식산업의 거래가 둔화되고 있으며, 가계의 소비도 감소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해외 수입을 억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연도가 바뀌는 4월부터는 관세율이 44.3%에서 42.3%로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결산 대책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업자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매입도 적고, 비교적 수급이 균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일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축산업 진흥사업단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1월말 돈육 추정재고량은 전년 동월대비 31.6% 감소한 120,600톤으로 전년 수준을 대폭 밑돌고 있다.

수입돈육 부위별 불균형 심화

일본의 수입 돼지고기 부위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 미트저널사는 일본의 수입돈육 수급상태는 등심과 안심의 경우 공급과잉을, 전후지와 어깨등심은 공급부족 사태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등, 안심 가격은 폭락하고 있는 반면 전지와 후지는 육가공원료 부분에서만 지난해 각각 4만톤, 3만톤 부족에서 올해는 부족분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부위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면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만산 돈육은 풀세트로 수입, 부위별로 균형을 이뤘으나 대만산 수입중단 이후 수입선이 각국으로 대체되면서 특정 부위 중심의 수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도 계속돼 등, 안심은 남아돌고, 후지는 약 2만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돈육 대일수출 공세 강화

미국 식육수출연합회(USMEF, 콜로라도주) 필립회장은 동경에서 회견을 갖고 금년의 대일 식육 수출목표를 돈육 20% 증가, 쇠고기 6% 증가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97년 미국의 식육 수출량은 돈육이 전년대비 3.3%, 쇠고기가 0.6% 감소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지금까지 최대 수입국이었던 대만산 돈육이 금수조치 되었으나, 그 자리를 덴마크 및 한국 등에게 뺏긴 것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돈육에 대해 일본의 규격에 맞는 커트방식을 연구하는 등 대일 수출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GSM-102 2차분 6천만달러 육류배정

미국 농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4억달러의 GSM-102 자금 추가분과 1차분 가운데 사용내역이 정해지지 않은 1억달러 등 5억달러 가운데 육류에 배정된 금액은 6천만달러로 알려졌다. 이외에 곡물류 2억9천만달러, 원면은 1억2만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냉동식품, 인기 상승세 지속

전국 냉동식품연합(NFFA)의 '97년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냉동식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자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오늘날 대부분의 냉동식품이 신속 냉동되어 바로 손질없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식당 종사자들의 경우 별도의 노동비용을 들이지 않고 메뉴를 개발 및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직장여성의 증가에 따른 가정식 대용음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증가와 항상 구입이 간편하고 장기보관이 가능한 점, 부패 및 박테리아 오염 정도가 신선제품보다 훨씬 낮다는 점 등이 인기 상승세의 원인으로 보여진다.

IBP 쇠고기 또 O-157 오염

지난해 O-157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미국산 IBP 쇠고기에서 또다시 O-157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농무부 재키 나이트 대변인은 지난 4월 29일 일리노이주에 있는 IBP 조슬린 공장에서 지난 14일 작업된 가공용 분쇄육이 O-157:H7에 오염, 전량 회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는 이번에 O-157 대장균이 검출된 쇠고기는 일반 소비용이 아니라 대량 수요처에 분쇄육용으로 공급됐으며 일부가 소비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소비자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를 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식품전문가들은 분쇄육을 사용하는 햄버거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당부했다.

'98 「농업관측 포럼」에서 향후 10년의 식육생산 상황을 전망

지난 2월 23~24일 워싱톤에서 개최된 ['98 농업관측포럼]에서 농무성 경제조사국의 밀톤 마진슨은 돼지의 10년후 생산상황을 전망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94년 후반부터 '95년에 걸친 저가격과 '96년부터 '97년 초두까지의 사료비 고(高)로 생산자는 사육수를 감소시켜 왔다. 그러는 동안 소규모 생산자는 전업 또는 폐업하게 되고 대규모 생산자는 사육규모를 확대하고 일관 생산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

현재의 저가격에도 생산증가는 금년 가을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앞으로 신장률은 낮아지면서도 '99년 또는 2000년까지 전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은 2000년 이후 전년대비 감소하기 시작 2003년까지 감소하고 이후부터 증산으로 전환 2007년까지는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97년의 47만톤이 2007년에는 90만톤 전후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대만 구제역 백신접종돈에 이표 부착 의무화 추진

지난해 3월 처음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올해 1월이후 한동안 발생이 없었다가 4월 5일 다시 발생했다. 이 농장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형태는 작년에 발생한 것과 동일한 O_1형이었다. 이에 따라 대만 당국은 앞으로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금년 여름부터 백신접종돈에 이표 부착을 의무화 하고, 이표를 하지 않은 돼지는 도축장에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식육시장 단계적 개방하기로

대만은 그동안 수입을 금지하였던 미국산 돈육, 가금육 및 잡육(혀, 간등) 시장을 즉시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WTO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쌀, 돼지고기 및 잡육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대만의 관세율인 쿼터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이

일단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과도기를 거쳐 15% 수준의 관세를 돼지고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또한 25%의 관세율 수준에서 쇠고기 및 잡육의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대만은 그동안 금지하였던 다양한 돼지 절단육을 수입할 것이며 또한 기타 수입규제 대상의 돼지 절단육, 복부살, 살이 붙은 돼지갈비, 잡육에 대한 관세율 쿼터를 설정할 것이며, 오는 2005년 1월 1일에는 시장이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

구제역으로 인한 정부지출 3억2천만불, 피해액 58억4천만불

일본 농수성 축산국이 지난해 11월 현지조사 결과에 의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만은 구제역 발생으로 정부의 총지출액은 104억 5천만위안(3억 2천만달러)으로 주내역은 농가 식육가공업자 및 농업조합 단체에 대한 돼지 매상자금의 보조, 돈가유지를 위한 냉동보관의 창고료의 보조, 백신의 구입경비, 매각, 소각, 소독경비, 살처분 수당금(385만두분) 등이다.

또한 이로인한 금후의 손실까지 따질 때 관련기업을 포함한 피해 총액은 농업위원회 추정 1,900억위안(58억 4천만달러) 정도라고 한다.

EU 소비자 및 환경 지향적인 농업개혁 추진

EU 집행위원회는 차세대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개혁안인 'Agenda 2000'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유럽 농업을 소비자 지향적이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히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농업정책을 단순화시켜 투명성을 높히고 농업의 환경친화력을 높히며 회원국들에게 지역적인 특성의 반영폭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민에 대한 직접보상 규모 증가, 차기 WTO협상에 대해 적극적 대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중국 돼지두수 4억7천5백만두

'98년 현재 세계 최대의 돼지 소유국은 여전히 중국이며 특히 지난 5년동안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농무성에 따르면 이 밖에 미국, 브라질 등 12개국이 1천만두 이상 사육두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한국은 21번째인 652만3천두로 나타났다.

▲중국 475,000 ▲미국 60,250 ▲브라질 31,424 ▲독일 24,800 ▲스페인 18,500 ▲폴란드 18,500 ▲러시아 17,000 ▲프랑스 15,450 ▲카나다 12,325 ▲덴마크 11,400 ▲필리핀 10,465 ▲우르과이 10,000 (단위:천두)

홍콩 중국산 돼지고기 내장 판매 금지

홍콩 보건당국인 위생서는 최근 돼지의 허파, 간, 콩팥 등 내장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에서 수입된 돼지고기 내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천식약 성분이 발견된데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7명이 돼지 내장을 먹은 후 두통, 수전증, 가슴떨림증 같은 증세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생서가 중국산 돼지고기 내장을 1차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축산농가들이 돼지가 지나치게 비만해져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사료에 천식약을 타 먹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홍콩 당국은 홍콩 전역의 도축장에 대해 위생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養豚